

四象體質診斷의 客觀化 研究에 대한 現況 및 展望

宋 一 炳*

The Future Prospect of the Studies on the Objectification of Sasang Constitution

*Song Il-byung**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th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Constitution means to combine the function into the body. It also includes the genetic factor and the environmental factor.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has the organized and unique ideas of the theory and the practice. So it is widely used in Korea. But it has a problem to be popular. That's the objectification of Sasang constitution.

There are so many studies to classify Sasang constitution analytically and objectively.

I try to classify the studies to identify Sasang constitution objectively and check the problems.

1. The morphologic studies of Sasang Constitution are divided into the figure and the face-speech through the morphologies and the phonetics. We need to standardize and make a simple method through computer software.
2. The study of the mind is used by the questionnaire about the talent, the character, and the greed each constitution. Recently QSCC II computer software is made and is used at many clinics in Korea. We need to recheck children and Taeyangin.
3. The symptom and the disease are subjective. So the study of them is usually used by some diagnostic equipments. But these have to be reevaluated on the view of Oriental Medicine and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醫學科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d try to study the objectification of Sasang constitution. And then we must try to objectify Sasang constitutional disease.

4. Disease and symptoms have to be studied much more about the mechanism and the relation. The study of medicine was done the way of the homeopathy using EAV. But that had some problems. So it should depend on the new science.

초 록

體質이란 形體에 機能을 결부시킨 것으로 遺傳的 體質의 形成要素와 生活環境의 要素가 합치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李濟馬의 四象體質理論은 그 이론적 근거와 임상적 활용에 있어서 體系的이고 一貫的이므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李濟馬의 四象醫學이 普遍化되고 一般化되기 위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 四象體質診斷의 客觀性이다.

論者は 그 동안 진행된 研究現況을 分類하고 그 方向을 다음과 같이 展望하여 본다.

1. 그 동안 진행된 體質診斷의 客觀化 研究는 肯定的으로 評價되지만, 研究의 限界과 問題를 克服하기 위하여 體質病證의 檢證을 통한 體質診斷의 客觀化를 試圖하여야 한다.
2. 形態學的 客觀化 研究는 이것을 實用化하기 위해서 먼저 標準化作業을 進行되어야 하고, 計測方法에 따른 誤差發生과 오랜 評價時間을 극복하기 위하여 간편한 software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構造的·靜的인 狀態의 四象人 特徵외에 機能的·動的인 狀態의 分析 및 解析이 병행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3. 設問調查紙를 이용한 客觀化 研究는 QSCCⅡ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현재 설문조사지에 小兒의 체질 분류에 대한 평가와 太陽人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心에 대한 再解析을 통하여 四象人의 心理特性 및 行動特性을 分析的으로 研究해야 한다.
4. 診斷機器를 이용한 客觀化 研究는 다양하게 進行되어 왔다. 그러나 먼저 이들 診斷機器는 標準化作業 후에 生理的·病理的 基準下에서 韓醫學的 評價 및 四象醫學的 評價가 先行되어야 한다. 그런 후에 四象人 體質病證을 客觀化하기 위한 研究가 시도되어야 한다.
5. 體質病證의 客觀化 研究로 水穀病證과 氣液病證의 區分精神, 病證의 輕重緩急에 따른 順逆의 區分精神, 體質에 따른 自律的 調節精神의 認識의 轉換이 필요하다. 더불어 體質病證에 대하여 現代 科學技術 및 醫學技術을 응용하는 다양한 試圖가 필요하다.

I. 緒 論

體質이란 형체에 기능을 결부시킨 것으로 유전적 체질의 형성요소와 생활환경적 요소가 합치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體質理論은 『黃帝內經』의 五態人 體狀으로부터 시작하여 역대로 내려오면서 많은 언급이 있었다¹⁾.

金元대의 朱震亨(1281-1358)은 '瘦人是 火가 많고 肥人是 濕이 많으며 黑色인 사람은 氣가 實하고 白色인 사람은 氣가 虛하다' 고 하였다.

明대의 張介賓(1563-1640)은 陽臟人 陰臟人 平臟人 등을 논하였고, 또 醫宗金鑒에서는 靈樞의 五態人 體狀을 전제하면서 '뚱뚱한 사람, 여인 사람, 기가 왕성한 사람과 쇠약한 사람, 장이 찬사람과 더운사람이 있다' 하고, '病邪를 받는 것도 모두 달라 장이 차가워지거나 더워지며 또 虛해지거나 實해지기도 한다' 라고 하였다^{1,2)}.

清대의 葉天士(1666-1745)는 臨證指南醫案中에서 '평소의 체질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하고 木火質, 濕熱質, 肝鬱質, 陰虛質, 陽虛質, 脾弱質 등 여섯가지로 나누었고, 陳念祖는 '사람의 形體는 厚薄이 있고 氣는 盛衰가 있으며 臟은 寒熱이 있어 체질에 따라 寒化 熱化된다' 고 하였으며, 章楠은 '六氣의 病邪가 陰陽에 따라 같지 않다고 하고서 사람을 손상시킬 때도 陰陽 強弱의 변화에 따라 질병이 초래된다' 고 하였다. 匡調元은 正常質, 燥紅質, 晦澁質, 滯質, 倦脫質, 遲冷質 등 여섯가지로 나누었다. 余朋千은 증후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正常型, 陰虛型, 陽虛型, 陽熱型, 氣滯型, 血瘀型, 氣血虧虛型, 痰濕型으로 나누었다^{1,3,4,5,6)}.

朝鮮後期에 李濟馬(1837-1900)는 『東醫壽世保元』에서 外貌과 心性,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특징에 따라 太陽人,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으로 분류하고, 四象人에 따른 生理, 病理, 治療 및 養生 등을

제시하였다⁷⁾.

그 중에서 李濟馬의 四象體質理論은 그 이론적 근거와 임상적 활용에 있어서 體系的이며 一貫的이므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李濟馬의 四象醫學이 普遍化되고 一般化되기 위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 四象體質診斷의 客觀性이다.

『東醫壽世保元』의 "四象人辨證論"은 包括的이고 直觀的인 내용으로 서술되어 학자들마다 약간의 체질진단오차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李濟馬의 四象體質理論을 근거한 分析的이고 客觀的인 기초연구가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四象體質診斷의 客觀化에 크게 일조함은 분명하나 각각의 연구에 한계점 및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論者는 四象體質診斷의 客觀化에 대한 研究現況을 檢討하고, 그 方向을 展望하고자 한다.

II. 研究方法

『東醫壽世保元·四象人辨證論』에서는 세가지의 체질진단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人物形容'을 자세히 살피는 방법이 있다. 이것에는 外貌(體形氣像과 容貌詞氣)와 心性(性質과 材幹, 恒心과 心慾)을 관찰하는 것이다. 둘째로 '病證'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大病과 重病, 完實無病, 體質證과 體質病證 등이 해당된다. 셋째로 '用藥'의 방법이 있다⁷⁾.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東武가 제시한 세가지 四象人辨證方法을 기준으로 그 동안 진행된 연구를 分類하고 이에 그 方向을 展望하여 본다.

Ⅲ. 本 論

1. 形態學的 客觀化 研究

形態學的 客觀化 研究은 이제마의 人物形容에 관한 外貌에 대한 것으로 體形氣像과 容貌詞氣의 연구로 분류된다.

이러한 研究은 體形氣像과 容貌詞氣에 대하여 현재 生體計測學 및 音聲學에서 이용되는 도구를 이용하여 形態學的 特徵을 도출하고 있다.

1) 體形氣像에 관한 研究

體形氣像에 관한 研究은 권영식(1973)의 乳臍尺度法⁸⁾, 이병행(1974)의 乳房 및 腸骨尺度法⁹⁾, 박석연(1982)의 頭部觸診法¹⁰⁾, 허만희 등(1992)의 四象人의 形態學的 圖式化에 관한 研究¹¹⁾, 조봉관 등(1994)의 X線CT畫像を用いた四象體質型の形態學的判別アルゴリズムの提案¹²⁾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길이 혹은 폭을 측정하여 삼차원적인 인체를 서로 비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이의주 등(1998)이 길이, 폭, 둘레, 두께와 부피, 체적 등을 비교하여 인체를 신체분절별로 계량화하여 체질별 형태학적 특징을 정량화하고 있다.

그외에 박성식 등(1998)은 208명의 指紋과 손바닥문을 채취하여 사상체질 유형과 관련성을 비교하였다.

2) 容貌詞氣에 관한 研究

容貌詞氣에 관한 研究은 고병희 등(1996)의 四象體質別 頭面部의 形態學的 特徵¹³⁾가 있으며, 최근에는 홍석철 등(1998)이 耳目鼻口에 대한 사상인의 형태학적 특징을 정량화하고 있다.

현재 頭面部에 대한 形態學的 研究은 3차원 영상

자료를 수집하여 이미지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계측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질별 특징을 定量化하였다.

또한 김달래 등(1996)은 聲紋(Sound Spectrogram)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聲道(Vocal Track)의 공명주파수(Formant)와 聲帶(Vocal Cords)의 특징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본주파수(Fundamental Frequency)를 분석하여 音聲에 의한 사상인의 특징을 객관화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¹⁴⁾.

3) 問題點 및 展望

外貌에 관한 研究에 대한 연구는 形態學的 研究 및 音聲에 대한 研究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계측방법에 따라 오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측항목이 많아 평가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간편한 software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標準化作業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外貌에 대한 연구는 構造的·靜的인 狀態의 四象人 特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만으로는 四象人의 外貌에 대한 特徵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機能的·動的인 狀態로의 分析 및 解析이 병행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2. 設問調査紙에 의한 客觀化 研究

1) QSCC II의 개발

心性에 관한 研究은 四象人의 性質과 材幹, 恒心과 心慾 등을 設問調査方法을 이용하여 研究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사상변증론소고(고병희 등, 1985)¹⁵⁾에 이어 기본설문지가 작성(1987)¹⁶⁾되고, 이후 개량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사상체질분류검

사지(QSCC)의 타당화 연구(김선호 등, 1993)¹⁷⁾, 설문지를 이용한 체질감별방법의 신뢰도에 관한 연구(김달래 등, 1994)¹⁸⁾, 사상체질분류검사지(I)의 타당화 연구(이의주 등, 1995)¹⁹⁾ 등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후 사상체질분류검사지(I) 중에서 문항적격도가 높은 문항을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에 첨가하고, 설문문항을 전문가(국문학자, 철학자, 통계학자, 한의사 등)와 같이 논의한후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를 개발하였다. 그리하여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의 표준화 연구(김선호 등, 1996)²⁰⁾와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의 타당화 연구(이정찬 등, 1996)²¹⁾를 통하여 컴퓨터 프로그램화하여 한방임상에 널리 응용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神經精神科 領域에서 널리 사용하는 성격요인분석(16-PF)와 다면적인성검사(MMPI)을 이용하여 四象人의 心性과 비교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22, 23, 24)}.

2) 問題點 및 展望

心에 대한 分析의 한계성 때문에 心性에 관한 研究는 設問調查紙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사상체질분류검사지는 동『醫壽世保元』 및 『格致藁』의 내용에 근거하여 문항을 다듬어서 妥當性 및 標準化 作業을 거쳐 현재 software로 개발되어 임상에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설문조사지는 年齡에 있어서는 小兒의 체질분류에 대한 평가와 體質에 있어서는 太陽人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李濟馬의 心의 분석에서 변증방법에 적용된 性氣-性質과 情氣-材幹의 상호 연관관계 및 제어방법 및 正不의 상태 등을 연구, 心의 작용인 喜怒哀樂의 氣를 성기와 정기를 연관하는 연구하여 보다 세밀한 四象人의 心理特性 및 行動特性을 分析의으로

研究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神經精神科에서 生理的 狀態 및 病理的 狀態에서 응용해 볼 수 있는 設問紙와의 相關性을 四象人과 비교분석해야 할 것이다.

3. 診斷機器를 이용한 客觀化 研究

최근 생체에 대한 기능적 이상을 평가하는 진단 기기가 국내 한의학계에 도입되면서 사상체질과의 상관관계 및 체질진단의 모색으로 진행되어 왔다.

1) O-Ring Test을 이용한 研究

1970대초 뉴욕에서 발표된 오무라 요시아기(大村惠昭)의 O-Ring Test는 어떤 물질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근육힘의 강약으로 찾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명복(1973)은 체질진단 및 음식의 선택에 응용하였다²⁵⁾. 그러나 노성호(1993)의 '체질약물을 이용한 O-Ring Test에 의한 체질감별에 대한 고찰'과 김정렬 등(1995)의 '계측기를 이용한 O-Ring Test법의 검증에 관한 연구'에서 O-Ring Test의 문제점 및 응용의 한계점을 보고하였다^{26, 27)}.

2) 自律神經과 體液電解質의 分析에 의한 研究

조보관 등(1993)은 '체질에 따른 산염기평형과 전기자극에 의한 맥박수 및 체액 전해질의 변동에 관한 실험적 고찰'에서 자율신경과 체액 전해질을 사상체질별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사상체질과 산·염기평형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건강한 체질실험군에 대하여 혈액개스를 측정하여 혈액pH, PaCO₂, [HCO₃⁻] 그리고 BE의 파라메타를 가지고 단순 산·염기평형이상을 실험

한 결과, 태음인과 소음인은 알카리증, 태양인과 소양인은 산증의 성적을 각각 보였다.

또한 사상체질과 자율신경계 및 체액 전해질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극문경혈에 전기자극을 가하기 전후의 맥박수와 혈청Na농도 및 혈청K농도를 측정 한 결과, 정상상태에서는 태양인과 소양인은 흥분성의 향진 즉 교감신경우위형으로 나오고, 태음인과 소음인은 흥분성의 저하 즉 부교감신경우위형의 성적을 보였다. 그리고 태양인 및 소양인 실험군에서 상대적으로 혈청K농도가 높은 것은 산증의 성적과 일치하며, 태음인과 소음인 실험군에서 상대적으로 혈청K농도가 낮은 것은 알카리증의 성적과 일치한다²⁸⁾.

3) 적외선체열촬영진단기(D. I. T. I.)를 이용한 研究

지규용 등(1993)은 '적외선체열촬영진단기를 이용한 체질분류와 병리진단에 관한 임상적 연구'에서 체질별 사초부위의 체열분포 차이를 보고하였다²⁹⁾.

조봉관(1995)은 '적외선 촬영을 이용한 체질 판별의 특징 파라미터의 추출'에서 무부하 정상 상태 및 극문 경혈에 전기 자극을 인가하고 난 직후의 체간부, 얼굴, 손, 그리고 사초부위 등의 피부온도를 측정하였다³⁰⁾.

4) EAV를 이용한 研究

EAV(Electroacupuncture According to Voll)는 1953년 독일 해부학자 Dr. Voll에 의해 고안되어 현재 독일, 러시아, 대만 등에서 사용되며, 한의학적 경락이론과 전자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조기진단과 치료에 이용되는 기구이다. 이것의 원리를 살펴보면, 생물체는 Bioelectric energy를 가지고 있으며 건강한 기관은 에너지의 생산과 소

모가 평형을 이루고 있고 세포가 손상되면 손상전류를 흐르며 이변화는 극히 미약하고 정상전류와 다르며 임상검사나 실험실검사로 감지되지 않는 장기의 이상이 발생시에도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그리하여 2V이하의 미소 전압을 미소전류 고저항을 통하여 방전시켜 경혈에 나타나는 부하량의 생성률을 측정한다³¹⁾.

한주석 등(1995)은 병증유형에 따른 EAV 측정치의 상관성을 보고하였으나, 사상체질의 유형에 따른 차이점을 없다고 하였다³¹⁾.

김종원 등(1995)은 'EAV의 측정치와 사상체질 유형 및 증풍이 상관성에 관한 연구'에서 체질과의 상관성보다는 질환과의 상관성이 높다고 하였다³²⁾.

차철주 등(1996)은 EAV의 측정치에 대한 연령별, 성별, 체질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각각의 요소를 고려하여 진단에 응용할 것을 제시하였다³³⁾.

5) 회수식 맥진기를 이용한 研究

홍석철(1995)은 회수식 맥진기를 이용하여 臟部位에서 나타난 맥파를 꼭지점수, 진폭의 크기, 상하의 편차정도, 간섭파의 정도, 변형파의 정도, 현맥의 유무 등으로 나누어 사상체질과 상관하여 분석하였다³⁴⁾.

6) 良導絡을 이용한 研究

1950년 니가다니(中谷)는 피부에 약한 전류를 통과시켜 전기가 통하는 상태를 연구하는 중 腎炎 호나자로부터 良導點을 발견하게 되었다. 良導絡은 내장 역할을 지배하고 있는 자율신경통로에 인위적으로 9-12V의 전압을 걸어 줄 때 피부상의 특이점(경혈)을 통해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여 병의 유무를 판단하며, 이 자율신경통로는 신경에 연결되어 있어 다른 부위보다 전류가 잘 흐르기에 良導絡이라 한다³⁵⁾.

성삼재 등(1997)은 '사상체질 유형별 양도락 측정치에 대한 고찰'에서 사상체질별 양도락 측정치의 사이를 보고하였다³⁵⁾.

7) 虹彩診斷機(Iridoscopy)를 이용한 研究

1881年 이그나츠 본 펙제리에 依해서 提示되어 현재 독일, 러시아, 미국 등에서 활발하게 研究되고 있는 虹彩學은 虹彩에서 限定된 地域의 分割區域(홍채차트)에 의존하는 痕迹, 構造, 着色과 갈라變化에 바탕으로 遺傳的인 徵候, 개인의 生理的 徵候, 病理的 徵候를 밝히는 學問이다³⁶⁾.

황덕연 등(1998)은 홍채에서 나타난 징후와 사상체질과의 상관성 분석을 통하여 홍채학에서 제시한 체질에 대한 연구 및 홍채징후중 체액 및 자율신경 상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虹彩學이 개인의 遺傳的 情報과 현재의 生理, 病理的 徵候를 나타냄으로 虹彩學이 가지고 있는 情報를 통하여 四象醫學에서 두가지 方面으로 活用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體質別 特徵을 비교하고, 둘째, 虹彩學의 體質과 비교한 뒤 疾病의 傾向性和 現病證을 관찰하는 것이다.

8) 遺傳子 分析에 의한 研究

遺傳子 分析法에 의한 研究는 RAPD 분석법에 의한 것과 amp-FLP 분석법에 의한 것을 진행중이다.

RAPD 분석법을 이용하여 전 체능 DNA를 대상으로 약 300여 종류의 random primer (DNA 결합인자)를 사용하여 체질별 다형성을 검토하고 있다. 체질간의 다형현상을 신속하게 비교 검색하기 위하여 같은 체질내 10개 개체를 혼합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random primer 10개를 1차적으로 선발한 다음 체질별 30개체의 RAPD 검출양상을 비교 분석하

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Amp-FLP 분석법을 이용하여 여러 DNA typing 방법 중에 CSF1PO, vWF, THO1 의 3종의 STR과 D1S80의 1종의 VNTR을 amp-FLP법으로 PCR하고 분석한 결과, 이중 vWA와 CSF1PO 에서 체질별 차이점이 인정되었다. 체질별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여준 vWA와 CSF1PO의 경우, 충분한 크기의 표본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여 위와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면, 체질간 유전적 차이를 조사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전자 분석법은 너무나 방대한 인간의 genome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과를 얻기는 힘든 방법이며, 체질이란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 발현되는 것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상체질이 유전하는지, 유전한다면 어떠한 유전법칙을 따르는지를 밝혀낼 수 있다면 이는 사상의학 뿐 아니라 의학과 생물학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 問題點 및 展望

診斷機器를 이용한 客觀化 研究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있다.

첫째, 자극에 의해 인체의 반응을 측정하는 진단기기의 경우 측정치의 工學的, 韓醫學的, 四象醫學的 意味가 명확하지 않다. 둘째, 진단기기는 再現性이 있어야 한다. 셋째, 韓國人을 對象으로한 標準化가 되어 있지않다. 넷째, 진단기기의 生理的·病理的 基準이 없다.

따라서 이들 진단기기는 標準化作業후에 生理的·病理的 基準下에서 韓醫學的 評價 및 四象醫學

의 評價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진단기기의 적용이 대부분 체질진단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체질병증의 구분 및 단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법론을 연구하여 체질병증을 객관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4. 體質病證의 客觀化 研究

1) EAV를 이용한 研究

고병희 등(1997)은 한약재가 EAV경락에 미치는 영향과 약제를 통한 사상체질진단 적용 여부를 연구하였는데, 모든 약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ID는 하강하고 MAX값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체질진단에도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다³⁷⁾.

2) 問題點 및 展望

體質病證과 病證藥理에 대한 研究는 현재 적극적인 시도가 없었다.

用藥에 관한 研究로 EAV의 同種療法을 이용하여 시도하였으나 試藥의 基準 및 測定值의 意味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어 사상체질진단에 응용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사실 東武公은 과학적으로 체질진단의 방법으로 이용하였던 것은 病證의 比較와 處方의 活用이었다. 그러나 후대에서는 이것의 중요성은 무시된 채 생체의 일부 반응량으로 체질을 규정하려고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論者는 다음과 같은 研究方向을 提示하고자 한다.

첫째, 病證 및 處方에 대한 다양한 이론접근 및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病과 症 및 病證을 定意하여야 한다. 현재 病證의 운영정신을 기초로 체질별 치료개념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체질별로 病證을 차별화하여

쉽게 임상에 응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병리적으로 발현하는 다양한 症과 『東醫壽世保元』에 쓰여져 있지 않은 病證에 대하여서는 학자마다 다른 경험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病의 개념과 症과 病證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파생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상의학적 病, 症, 病證의 정의와 상호간의 영향을 심도있게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먼저 心-性氣·情氣-恒心·心慾-表病·裏病-病證-症의 단계적 연구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四象體質診斷 및 治療의 必須條件이 되는 것이다.

한편, 藥物의 반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處方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는 동안 氣味, 歸經에 의한 處方의 해석은 앞으로는 지양하여야 한다.

東武公은 體質病證을 설정하고 이것을 실증하기 위하여 기존처방의 變用 및 新方을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東武公이 기존처방을 變用하여 사용하게 된 배경을 통하여 처방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體質病證의 客觀化 研究로 水穀病證과 氣液病證의 區分精神, 病證의 輕重緩急에 따른 順逆의 區分精神, 體質에 따른 自律的 調節精神의 認識의 轉換이 필요하다.

셋째, 體質病證과 體質病證藥理에 대한 현대의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을 접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데는 현실적 많은 한계가 있으나 향후 발전적 의학기술을 응용하여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病·症·病證에 대한 체질별 상관관계, 病證에 따른 輕·重·險·危의 차이, 同屬一證의 객관화 등이 있다.

그리고 體質病證藥理에 따른 四象方劑의 구분된

해석을 기초로하여 體質과 藥物의 相關性, 病證의 適合性, 用藥後 病證의 變化 등을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IV. 結 論

論者は 그 동안 進行된 研究現況을 分類하고 그 方向을 다음과 같이 展望하여 본다.

1. 그 동안 進行된 體質診斷의 客觀化 研究는 肯定的으로 評價되지만, 研究의 限界와 問題를 克復하기 위하여 體質病證의 檢證을 통한 體質診斷의 客觀化를 試圖하여야 한다.
2. 形態學的 客觀化 研究는 이것을 實用化하기 위해서 먼저 標準化作業을 進行되어야 하고, 計測方法에 따른 誤差發生과 오랜 評價時間을 극복하기 위하여 간편한 software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構造的·靜的인 狀態의 四象人 特徵의 에 機能的·動的인 狀態의 分析 및 解析이 병행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3. 設問調査紙를 이용한 客觀化 研究는 QSCC II 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현재 설문조사지에 小兒의 체질분류에 대한 평가와 太陽人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心에 대한 再解析을 통하여 四象人의 心理特性 및 行動特性을 分析的으로 研究해야 한다.
4. 診斷機器를 이용한 客觀化 研究는 다양하게 進行되어 왔다. 그러나 먼저 이들 診斷機器는 標準化作業후에 生理的·病理的 基準下에서 韓醫學의 評價 및 四象醫學의 評價가 先行되어야 한다. 그런 후에 四象人 體質病證을 客

觀化하기 위한 研究가 시도되어야 한다.

5. 體質病證의 客觀化 研究로 水穀病證과 氣液病證의 區分精神, 病證의 輕重緩急에 따른 順逆의 區分精神, 體質에 따른 自律的 調節精神의 認識의 轉換이 필요하다.
더불어 體質病證에 대하여 現代 科學技術 및 醫學技術을 응용하는 다양한 試圖가 필요하다.

參 考 文 獻

1. 홍원식 : 정교황제내경영추. 서울, 용양의학연구소 출판부, pp.302-303, 1985.
2. 채인식 : 한방임상학, 서울. 대성문화사, pp.41-43, 75-78, 125-128, 1987.
3. 섭계 : 임증지남의안. 상해, 과학기술출판사, p.48, 603, 620, 632-634, 1991.
4. 장남 : 의문방알. 서울, 동남출판사, pp.29-51, 1985.
5. 광조원 : 조원, 체질, 식양. 상해, 과학기술문헌출판사, pp.32-40, 1994.
6. 여봉천 (조혜인 역) : 신동양의학개론. 서울, 일중사, pp.20-33, 349, 1997.
7.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사상의학. 서울, 집문당, 1997.
8. 권영식 : 사상방약합편. 서울, 행림서원, pp.37-42, 1973.
9. 이병행 : 침도원류중마. 서울, 행림서원, pp.347-348, 1974.
10. 박석언 : 사상두부촉진법. 의림지 통권147호, pp.62-64, 1982.
11. 허만희, 송정모, 김달래, 고병희 : 사상인의 형태학적 도식화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4(1) : 107-148, 1992.

12. 조봉관, 배종일, 박병래, 고병희, 제등정남 : X線CT 畫像を用いた四象體質型の形態學的判別アルゴリズムの提案. LST논문집 6(1) : 912-919, 1994.
13. 고병희외 7명 : 사상체질별 두면부의 형태학적 특징. 사상의학회지8(1) : 101-186, 1996.
14. 김달래 등 : 성문과 사상체질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8(2) : 191-201, 1996.
15. 고병희, 송일병 : 사상체질변증에 대한 소고. 대한한의학회지 6(1) : 40-47, 1985.
16. 고병희, 송일병 : 사상체질변증 방법론연구(第一報, 第二報). 대한한의학회지 8(1) : 139-160, 1987.
17. 김선호, 고병희, 송일병 :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의 타당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5(1) : 61-80, 1993.
18. 김달래 : 설문지를 이용한 체질감별방법의 신뢰도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6(1) : 89-94, 1994.
19.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 사상변증내용 설문조사지(I)의 타당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7(2) : 89-100, 1995.
20. 김선호, 고병희, 송일병 :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의 표준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8(1) : 187-246, 1996.
21. 이정찬, 고병희, 송일병 :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의 타당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8(1) : 247-294, 1996.
22. 이정찬, 고병희, 송일병 : 사상체질분류검사의 준거타당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5(1) : 81-98, 1993.
23. 고병희 : 사상체질별 성격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14(2) : 64-76, 1993.
24. 고병희, 송일병, 김종원, 김종우 :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와 다면적인성검사(MMPI)의 비교 분석을 통한 사상체질감별과 사상체질별 인격특성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15(1) : 66-74, 1994.
25. 이명복 : 체질을 알면 건강이 온다. 서울, 대광출판사, pp.37-42, 1973.
26. 노성호 : 체질약물을 이용한 O-Ring Test에 의한 체질감별에 대한 고찰. 사상의학회지 5(1) : 147-150, 1993.
27. 김정렬, 김달래 : 계측기를 이용한 O-Ring Test법의 검증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7(1) : 69-102, 1995.
28. 고병희, 조봉관, 배종일, 제등정남 : 체질에 따른 산염기평형과 전기자극에 의한 맥박수 및 체액전해질농도의 변동에 관한 실험적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14(2) : 320-326, 1993.
29. 지규용, 최승훈, 안규석, 문준전 : 적외선체열촬영진단기를 이용한 체질분류와 병리진단에 관한 임상적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14(2) : 30-63, 1993.
30. 조봉관 : 적외선 촬영을 이용한 체질 판별의 특징 파라미터의 추출. 사상의학회지 7(2) : 265-274, 1995.
31. 한주석, 송일병 : EAV의 측정치와 병증유형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7(1) : 43-68, 1995.
32. 김종원, 고병희, 송일병 : EAV의 측정치와 사상체질유형 및 증풍이 상관성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7(2) : 59-88, 1995.
33. 차철주, 이상룡, 이의주, 홍석철, 김종원, 고병희, 송일병 : EAV 측정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8(2) : 131-150, 1996.
34. 홍석철 : 동의수세보원에 나타난 각 체질별 맥장과 맥진기에 의한 각 체질별 맥파의 비교. 대한

- 맥진학회지 1(1) : 79-100, 1995.
35. 성삼재, 송일병, 고병희 : 사상체질 유형별 양도
락 측정치에 대한 고찰. 경희한의대논문집
20(1) : 1-33, 1997.
36. Josef Deck Ettingen : Principle of Iris
Diagnosis. Otto L, Weber, Karlsruhe,
1982.
37. 고병희, 홍석철, 최진욱, 이수경 : EAV을 통한
체질 약물 적합성 연구. J. of Oriental
Medicine 2(1) : 117-123, 1997.